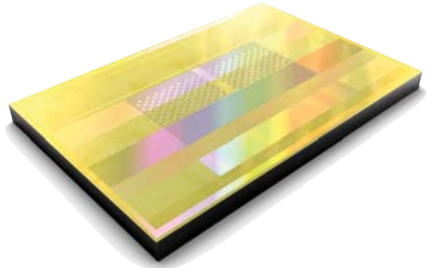


영화 61편, 단 1초에 처리

삼성전자, 2세대 D램 최초 양산

세계 최대 전송량의 '아쿠아볼트' 기존 고성능 D램보다 9.6배 빨라 업계 유일하게 HBM2 D램 공급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송량의 2세대 8GB HBM2(고대역폭 메모리) D램인 '아쿠아볼트' (사진)를 양산한다고 11일 밝혔다.

1.2V기반 2.4Gbps의 아쿠아볼트는 풀 HD 영화(용량 5GB) 61편 분량인 307GB의 데이터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다. 기존 고성능 그래픽 D램(8Gb GDDR5, 8Gbps)의 초당 데이터 전송량인 32GB보다 9.6배 빠른 셈이다. 특히 한 시스템에 8GB 패키지 4개를 탑재하면 최대 초당 1.2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기존 1.6Gbps 기반 시스템의 0.82TB 대비 성능을 최

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2세대 8GB HBM2 D램 아쿠아볼트는 1개의 버퍼 칩 위에 8Gb 칩을 8단 적층한 패키지로 '신호전송 최적화 설계'와 '발열 제어' 등 핵심 기술 적용을 통해 업계 최초로 2.4Gbps의 동작속도를 달성했다. 신호전송 최적화 설계 기술은 각 TSV 핀들의 신호전송 속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HBM2 D램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게 한다. 발열 제어 기술은 8Gb HBM2 D램 칩 사이에 열 범

프를 더 많이 배치하는 방식으로 칩의 온도 상승을 안정적으로 제어했다.

또한 아쿠아볼트는 패키지 아랫부분에 얇은 보호막을 추가해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시스템 양산과정에서 파손률을 낮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2세대 HBM2 D램 제품을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물(아쿠아)'과 번개처럼 빠르다는 의미인 '볼트(Bolt)'의 합성어 아쿠아볼트로 브랜드화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초격차 제품임을 의미한다. 1세대 HBM2 D램 제품 브랜드명은 '플레이볼트'였다.

이번 양산을 통해 삼성전자는 1세대 이어 2세대까지 업계 유일하게 HBM2 D램을 공급하며 슈퍼컴퓨터(HPC), 그래픽카드 등 프리미엄 HBM2 D램 시장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제36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이 한미약품 비전과 올해 R&D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한미약품

“희귀질환·항암 등 신약개발 韓 제약강국 이끌 이정표로”

한미약품

JP모던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혁신신약 등 25개 파이프라인 가동

“한미약품은 현재 7개의 비만·당뇨 바이오신약과 12개의 항암신약, 1개의 면역질환치료 신약, 3개의 희귀질환치료 혁신신약 등 모두 25개의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을 가동 중입니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6회 JP모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JP모던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로, 한미약품은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해 회사 비전 및 2018년도 R&D 전략 등을 발표했다.

권 사장은 10일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랩스트리플 아고니스트(LAPSTRIPLE Agonist)부터 소개했다. 한미약품은 동물 모델에서 랩스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우수한 지방간 및 간염 개선 효능을 확인한 바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역시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랩스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상용화가 가시화될 경우 환자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랩스트리플 아고니스트는 올해 1분기 중 임상 1상에 착수한다.

이어 권 사장은 희귀질환 영역(선천성 고인슐린증·큐코다당체침착증·단장증후군)에서 개발중인 바이오 혁신신약 3종도 소개했다.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로 개발된 랩스글루카곤 유사체(LAPSGCG Analog)는 올해 상반기, 단장증후군 치료제로 개발 예정인 랩스지엘피-2 유사체(LAPSGLP-2 Analog)는 올해 중 임상 1상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권 사장은 현재 랩스커버리(LAPSCOVERY) 기반 비만·당뇨신약 중 사노피와 공동개발 예정인 랩스인술

린 콤보(LAPINSULIN Combo)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글로벌 1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암신약 부문에서는 유전자(엑손20) 변이가 나타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획기적 약효를 입증한 포지오티닙(Pozitotini)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포지오티닙은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진이 주도한 동물모델 임상에서 기존 치료제에 비해 40배 이상 효력과 80% 이상의 종양 크기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권 사장은 “엑손20 변이가 나타난 폐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은 현재까지 개발된 사례가 없어 포지오티닙이 해당 질환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로 개발중인 FLT3 인히비터(HM43239)도 소개했다. AML은 백혈병 중 발병률이 가장 높지만, 기존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낮고 재발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난치성 혈액암으로, 환자의 약 30%에게서 FLT3 변이가 보고되고 있다. FLT3 인히비터는 전임상 결과에서, 변이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재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백혈병 줄기세포(LSC)에도 억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약품이 신약개발에 도입한 임상이행연구를 통한 결과로, 한미약품은 임상이행연구의 주요 연구수단인 동소이식 모델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Pentambody)를 적용해 개발 중인 면역·표적 동시 작용 항암신약은 기존 치료제의 병용요법 대비 매우 강력한 효과와 낮은 부작용 발현 빈도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권세창 사장은 “전세계 최고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미약품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며 “혁신신약 개발을 통한 한미의 ‘혁신’이 한국을 제약강국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삼성물산, 대규모 임원승진... 지난해 2배

부사장 4명 등 총 38명 승진 건설부문 8명→24명 3배 증가

삼성물산이 사장단 교체 이틀 만에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부사장 4명 승진을 포함한 총 38명의 대규모 임원 승진 인사다. 이번 임원 승진 규모는 지난해의 2배다.

1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임원 승진 명단에는 부사장 4명, 전무 10명, 상무 22명, 마스터 2명 등 총 38명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임원 승진 규모는 작년 인사에서 부사장 1명, 전무 3명, 상무 15명 등 총 19명이 승진한 것과 비교하면 2배다.

부문별로 보면 작년 건설부문에서 상무 8명 승진이 전부였지만, 올해는

부사장 3명·전무 6명·상무(마스터 포함) 15명 등 총 24명이 승진해 3배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사부문은 작년과 올해 각각 부사장 1명·전무 2명이 승진했고, 상무 승진이 작년 3명에서 올해 4명으로 1명 늘었다.

패션부문은 작년 전무 1명·상무 3명 승진에서 올해 전무 2명·상무 3명 승진으로, 리조트 부문은 작년 상무 1명 승진에서 올해 상무 2명 승진으로 부문별로 각각 1명씩 증가했다.

건설부문에서는 이병수(59), 정찬범(55), 최남철(55) 부사장이 승진했다.

이 부사장은 충북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현장소장, 시빌(Civil) 사업부장 등을 거쳤다.

전 부사장은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삼성전자로 입사해 상무를 지낸 뒤 제일모직 인사지원팀장을 거쳐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장으로 일했다.

최 부사장은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해 주택공사팀장, Q-HSE 경영실장, 감사팀장, 하이테크 팀장 등을 역임했다.

상사부문에서 승진한 정주성(54) 부사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삼성물산에 입사해 상사부문 재무팀장, 경영관리팀장, 경영지원팀장 등을 지냈다.

삼성물산은 “성과주의 인사원칙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임원인사...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승진

50대 임원 발탁... 젊은 인사 배치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갑 대흥기획 대표이사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아사하주류의 신임 대표에도 50대 임원을 발탁하며 젊은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롯데는 11일 11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2018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10일~11일 양일간에 걸친 롯데그룹 39개사의 정기 임원인사가 마무리 됐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2017년부터 롯데건설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이전에는 그룹 경영개선실적을 거쳐 롯데건설의 주택사업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냈다. 지난해 롯데건설은 주택분야 등에서 좋은 사업 성과를 냈으며, 롯데월드타워를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초고층기술력도 입증했다.

이갑 대흥기획 대표이사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6년 대흥기획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갑 대표이사는 꾸준한 광고 수주를 높이며 실적을 향상시켰다.

홍성호 FRL코리아 대표이사는 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갑 대흥기획 대표이사

무로 승진했다. 홍성호 대표는 2013년부터 FRL 코리아의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SPA(제조·유통) 일괄형 패션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며 수익성을 향상시켰다.

롯데네슬레코리아 대표이사에는 강성현 롯데롭스(LOHB's) 대표가 전무로 승진하며 내정됐다. 강성현 대표이사 내정자는 한국까르푸, BCG를 거쳐 2009년 롯데미래전략연구소에 합류했다. 2012년부터는 롯데롭스 사업부 설립을 주도한 유통 및 소비재 전문가로, 강 대표가 이끌어온 롱스는 2013년 1호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 96호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

중국 선양 대규모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낙천영광자산유

한공사 대표이사에는 권순학 기술부문장이 전무로 승진하며 내정됐다.

롯데는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아사하주류의 신임 대표에도 50대 임원을 발탁하며 젊은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에는 문영표 택배사업본부장이 내정됐다. 문영표 대표이사 내정자는 1987년 롯데상사에 입사해 그룹 경영개선실, 롯데마트 전략지원본부장 및 상품본부장 등을 지냈다. 롯데아사하주류 대표이사에는 수출입 경험이 풍부한 정재학 롯데주류 일반법인이 내정됐다.

잡화브랜드 사만사타파사를 운영하는 한국에스티엘은 김진업 롯데백화점 잡화부문장을 공동 대표로 내정했다.

또한 김수진 대흥기획 CS1팀장이 신임 임원이 되어, 올해 임원인사에서는 총 9명의 여성 신임임원이 탄생했다. 이로써 롯데의 총 여성임원은 29명이 됐다. 2012년 처음으로 3명의 여성 임원을 배출한 이래 6년만에 10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뉴롯데' 선포 후 첫 정기임원인사인 이번 인사에서는 지속성장과 미래 사업을 준비할 젊은 인재 발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인용 기자

대웅제약, 나보타 中 임상시험계획 승인

보툴리눔독소신 제제 '나보타'의 중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임상시험신청서(CTA)가 중국 식약처(C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 6월 임상허가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승인으로 나보타는 중국에서 2018년 임상 3상을 시작하여 2019년 임상 완료, 2020년 발매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 내 임상은 대웅제약의 중국법인에서 담당하며, 보툴리눔독소신 제제의 대표 적응증인 '미간주름의 개선'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국 대웅제약 부회장은 “이번 중국 승인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경쟁제품들이 제출에서 승인까지 평균 30개월가량 소요되었던 반면, 나보타는 18개월로 단기간에 승인됐다”며 “중국 내 제품허가를



위해 임상시험 진행만 남겨진 상태이다. 이번 임상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나보타의 중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보타는 2014년 국내 발매 이후 태국, 필리핀, 남미, 멕시코와 베트남 등지에서 발매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중동국가와 인도에 대한 수출계약도 체결되어 2018년 이후 본격적인 해외시장진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FDA와 유럽 EMA에 판매허가 신청 완료 후, 제조처 GMP 실사를 포함한 본격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박인용 기자